

진도군 '찾아가는 산부인과' 주민들에 인기 높다



관내 산부인과 없는 진도군이 지난 2009년부터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들이 탄 버스를 통해 임산부들을 보살피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해요

목포시, 행정도우미 배치

목포시가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공공기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배치해 불법주차 단속에 나선다.

시는 10일 "시청 청사내 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 주차장에 불법 주차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장애인 행정도우미 1명을 고정 배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청사 내 주차장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 발견 시 전단지를 부착 계도하고, 1회 계도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동일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장애인 복지관은 업무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10명을 고정 배치해 관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공공기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무설치 시설을 중심으로 연중 불법주차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기능) 미부착 차량과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 주민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군, 사업 시행 5년째 임산부 1525명 진찰

다문화 여성들엔 부인과 질환·암 검사도

진도군이 임산부를 위해 실시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이 관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이 5년째를 맞으면서 관내 임산부 1525명이 산전 진찰을 받았다.

특히 다문화 여성에게 부인과 질환 및 암 검사 등을 실시, 정밀검진이 필요한 대상자는 전문병원 의뢰해 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다.

군은 관내 산부인과가 없어 임산부들이 목포시 등 인근 자치단체에서 진료를 받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매주 둘째·넷째 화요일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진료팀이 매달 2차례씩 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산부인과 이동검진차량으로 관내 임산부들의 산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검진 항목은 산전 기본검사와 초음파 검진, 풍진검사, 임부 산전 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으로 검사 결과는 추후 개인이나 보건소로 통보·상담해주고 이용료는 전액 무료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올해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24회 진행될 계획으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찾아가서 제공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낙임 부부에게 인공 수정과 체외수정 시술비도 지원하고 있다. 문의는 진도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61-540-6034).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담양군이 지난 6일부터 죽녹원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해 모기 방역에 나서고 있다.

담양 죽녹원 사전 방역활동

모기 유충·서식처 제거 관광객에 쾌적환경 제공

담양군이 죽녹원 등 담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모기 유충과 서식처에 대한 사전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것이다.

10일 군에 따르면 담양군 보건소와 함께 여름철 모기 발생으로 인한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선하고 깨끗한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방역은 담양의 대표 관광지인 죽녹원과 죽향문화체험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차량 접근이 어려운 대밭 사이는 소규모 펌프를 활용해 꼼꼼하게 작업하고 산책로 및 관광지 주변은 보건소 전문방역차량이 역할을 맡고 있다.

보건소는 오는 6월 말까지 관광지는 물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제활동 실시해 월등 모기 유충 등 위생해충의 발생을 원천 봉쇄해 여름철 담양을 찾을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계절과 상관없이 모기 유충과 성충의 서식지가 되고 있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집중 방제를 실시하겠다"며

"담양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



보리 재배 현장 지도

최근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보리 생육재생기 판단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 센터는 올해 맥류 생육재생기를 지난 6일로 판단하고 오는 15일 이전에 웃거름 주기와 배수로 정비가 이뤄지도록 홍보 및 지도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해남군, 양돈 육가공 체험·교육장 설치

생산·가공·판매·관광 아우르는 '6차 산업화' 겨냥

소시지·햄 제조과정 직접 체험…내년까지 조성키로

해남군이 양돈의 생산·가공·판매·관광 등을 아우르는 '6차 산업화'를 위해 내년까지 양돈 육가공 체험장과 교육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군은 올해 1차 사업으로 전체 5억 원의 사업비 중 2억 5000만원을 투입 할 예정이다.

육가공 체험장과 교육장에서는 관

객들이 돼지고기를 활용한 소시지와 햄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

2015년 이후에는 2차 사업에 나서 동물복지 체험장을 설치, 돼지와 애완돼지를 사육하는 한편 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체험학습에 참여한 이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특히 소비자로부터 비선호부위인 돼지 뒷다리 원료육이 kg당 2900원인 반면 햄으로 가공 시 kg당 1만 3000원으로 부가가치가 향상되는 만큼 육가공시설을 설치·가동해 축산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군은 체험장을 조성할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사업을 완료하면 햄과 소시지 특산품화 개발과 함께 해남 관광지와 연계한 체험코스 운영, 학교 체험수업 진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장성장학회 장학생 150명 선발

군, 올해 중·고·대학생 대상…28일 접수 마감

장성군이 10일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2014년도 (재)장성장학회 장학생'을 선발 한다"고 밝혔다. 올해 장학생 선발에 정인원은 대학생 50~60명, 고등학생 30명, 중학생 60명 등 약 150명 수준으로, 지난 5일부터 올해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자격은 장성군에 등록기준 또는 주소를 1년 이상 계속 두고 있는 중·고·대학 재학생 및 진학예정자로, 성적이 고등학교 재학생과 입학 예정자는 최종학기 교과별 성취도 평정에 의한 평균평점이 '우' 이상, 대학교 재학생은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중학생은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읍·면·장의 추천을 반드시 받아야 하다. 수혜 대상자는 다음달 이사회에 의 심의를 통해 신청자의 성적과 생활형편, 부모의 재산 등을 고려해 최종 선발되며, 장학금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대학생은 60만~20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 중학생은 3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접수는 28일까지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경
23년
가발명가!
시술후

신제품 11종
59
만원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 1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평견적은 놓지 않습니다.

제작: 품질보증
제작: 품질보증
제작: 품질보증
제작: 품질보증
제작: 품질보증
제작: 품질보증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전
시공후

시공전
시공후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